

믿는 자의 권세

에이.엘. 과 조이스 길 슘
진이 엘. 김 옮김

Gill Ministries

Website: www.gillministries.com

연속적으로 출판된 교재들

승리를 거둔 교회

사도행전을 통하여

병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신유의 권능을 받음과 줌

사역을 위한 은사들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임을 알게 됨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경배자로 되어감

초자연적인 삶

성령의 은사를 통한

이 과정을 위한 참고서적

패배를 당하라고 지으시지 않았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목 차

제 1 과	당신의 원수를 알 것	5
제 2 과	이 땅 위에서의 권세	14
제 3 과	속임수로 된 사단의 권세	23
제 4 과	그때에 예수가 오셨음 - 하나님의 계획	30
제 5 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셨던 예수	40
제 6 과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47
제 7 과	인류에서 회복된 권세	55
제 8 과	오늘날의 사탄의 계략들	66
제 9 과	교회의 권세	74
제 10 과	왕국의 열쇠들	83
제 11 과	예수의 이름	92
제 12 과	승리하는 영적 싸움	101
	암기할 구절	110

제 1 과

당신의 원수를 알 것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계략의 하나는 우리의 처해있는 환난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공격에 대비하여 무저항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에게 승리하는데 요하는 각종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후 10:3~4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딤후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러한 병기들이 육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영의 세계에 속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상징적인 용어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 전쟁의 실제적인 묘사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영계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대인관계의 모든 분야에 걸쳐, 원수(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 우리들의 가족들
- 우리의 경제면
- 우리의 직장
- 우리의 마음 (정신적)
- 우리의 육신 (건강)
- 우리의 가정
- 우리의 도시들

- 우리의 국가들
- 우리의 세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과 그의 악령들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계 안에서입니다. 사람들과 갈등을 맺는 것은 단지 낙담과 패배만을 초래합니다.

누가 우리의 원수인가요?

만일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선정해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

- 우리의 가족인가?
-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 우리의 정부인가?
- 우리의 경제인가?

아닙니다!

정사 -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 악의 영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생생하게 우리의 원수를 서술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혈과 육에 대해 씨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이 마귀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음모

마귀의 음모는 우리를 대적해서 써오던 속임수의 계략과 계획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한 시도로 군대식 전쟁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마귀의 계획들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갑주와 병기들을 더욱 터득해야 됩니다. 갑주는 우리의 방어용입니다. 병기들은 우리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쓰는 승리의 공격용입니다.

엡 6:11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경고

- 예수님께 전념하라.
- 권세를 알라.
- 마귀에 대해 떨지 말라.

우리는 마귀나, 그의 귀신들이나, 혹은 그의 음모들로 지레 떨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된 권세를 알아차리게 된다면 우리의 영속에서 담대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귀나 그의 음모로 인해서 겁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음

하나님은 영원하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항상 존재하셨고 또 그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요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으셨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을 포함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신적 목적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골 1:16~17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천사들은 조직체입니다.

바울이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과 권세들을 열거하였을 때는 천사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는 천사들의 역할을 가리킨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칭호(titles)를 갖고 있음:

- 천사장 (Archangel)
- 스랍
- 그룹
- 생물

그들은 다른 역할을 갖고 있음:

- 보좌들
- 주관들
- 정사들
- 권세들

하나님은 루시퍼를 지으셨음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기에, 그가 루시퍼를 창조하셨음도 알게 됩니다.

루시퍼의 이전 지위

루시퍼의 본래 지위는 최고의 명예직의 하나였습니다. 그의 칭호의 하나는 “계명성(Morning Star)”이었습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루시퍼의 묘사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두 사람 모두 우리에게 루시퍼를 낱알이 묘사해 주셨습니다.

- 완전한 모범
- 지혜로 가득참
- 온전히 아름다웠음

겔 28:12b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Seal)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 보석들로 단장하였음

겔 28:13a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어.

- 아름다운 목소리

겔 28:13b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 소고는 타악기입니다.

비파는 플룻(Flute)과 같은 관악기입니다.

사 14:11a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어,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의 음성은 위대한 협주단(Orchestra)과 같았습니다.

- 흠없이 완전함

겔 28:1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시퍼의 역할

에스겔 선지자는 루시퍼의 원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 하나님의 보좌의 수호원

겔 28: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어,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룹은 언약궤(출애굽기 25:18~22)를 덮은 속죄소의 양쪽 위에 있지만, 루시퍼는 가장 큰 명예의 지위인 하나님 곁에 위치해있었습니다. “계명성”이나 “새벽별의 아들”로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고, 보호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는 수호하는 그룹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책임을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 찬양 인도자

그는 음악적인 음성의 묘사로 미루어 보아, 그는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

의 찬양과 경배로 인도하는 것 같고, 또 찬양과 경배를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보좌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 루시퍼의 타락

교만과 반항으로 인함

루시퍼의 반항과 타락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난 결과적인 전쟁을 이해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개입하고 있는 싸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겔 28:15,17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루시퍼는 그를 창조해 주셨던 분의 아름다움 대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그의 관심을 모으기 전까지는 완전하였습니다.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 분의 아름다움과 빛나는 광채에 그의 관심을 집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광채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하리라”

루시퍼에게 교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가지 뜻만이, 즉 하나님의 뜻만이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사 14:12~17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이 순간까지는 우주 안에 오직 한가지 뜻만이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뜻- 이었습니다.

그의 반항으로 루시퍼는 하나님의 뜻에 정 반대되는 자신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루시퍼의 5 번 “내가 하리라.” 라는 표현대로, 속임수와 반항의 표현은 하늘 보좌 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지점까지 진전되어 갔습니다.

싸움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 사탄과 천사들이 쫓겨났음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겔 28:16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 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쟁의 결과

삼 분의 일의 천사들이 루시퍼의 지휘아래 있었고, 그들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지휘아래 있던 다른 천사들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 충실하였습니다.

➤ 삼분의 일의 천사들이 타락하였음

계 12:4a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지구에 던져졌습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 이름이 바뀜

심지어 루시퍼의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아침의 아들과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과 같은 고상한 칭호를 받았던 그의 이름이:

- 용
- 뱀
- 마귀
- 사탄이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권위 밑에 있던 천사들은 반항으로 그를 따랐고, 보좌들, 정사들, 주관자들과 권세들의 조직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반영해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귀신들, 마귀들, 악령들로 불려졌습니다.

➤ 본성의 변화

사탄의 전체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종전에:

- 새벽별
- 새벽의 아들
-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였던 자
-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인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 부패했고,
- 무시당했고,
-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 그의 대단한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 어둡고,
- 추하고,
- 악하고,
-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과 반항 죄의 모든 결과였습니다.

문 제

1. 루시퍼의 원래의 역할과 지위를 설명하십시오.
2. 그의 반항, 타락과 그 결과로 온 전쟁을 서술하십시오.
3. 오늘날 신자들의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제 2 과

이 땅 위에서의 권세

지구가 창조되었음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거주하도록

이사야에 의하면 땅은 텅 비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사 45:18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 혼돈하게 되었음

그러나 창세기 1:2 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거주하도록 준비된 장소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영어의 “였다(was)”로 번역된 어휘는 바로 정확하게 “되었다(become)”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번역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렘 4:23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 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 어둡고 공허하게 되었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한 이 땅을 파멸(흑암)로 변화시켰음을 설명하여줍니다.

렘 4:23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서술했습니다.

렘 4:26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 사탄이 이 땅에 왔음

창세기 1:1 절과 창세기 1:2 절(주: 사탄의 반응 주 참조)사이엔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왔던 것이 가능합니다.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온 상태를 상상하여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중의 하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항함으로, 그는 심지어 그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지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쳐다보는 곳마다, 그가 지금 그토록 심하게 미워하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반항으로 말미암아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또 멸하기” 위하여 왔던 자이며, 그의 맹목적인 미움과 성냄은 이 땅을 실제로 파멸시켰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도록 두었던 유일한 장소는 공허하게 되었고, 혼돈하고 또 전적인 흑암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전 우주를 다스리고자 소원했었습니다. 이제, 그가 남겼던 것은 고작 하나의 작은, 캄캄한 공허한 혹성(Planet)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음

창세기 1:2 절에서 우리는 여호와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1:3 절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사탄은 그 음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영원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굉장한 곁에 질렸었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지어 여기 이 땅 위에서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곳, 여기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닳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본래대로 아름다움으로 회복 시키시는 것을 주목하였을 때, 사탄은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땅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존재하도록 말씀하심으로써 불러들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 1: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6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9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11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14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20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4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그대로 되니라)

26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9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탄의 반응

이 땅에서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혹성에 관심을 두셨겠습니까?

사탄이 그의 귀신들에게 고함을 지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실 수가 없는가? 그는 다스릴 수 있는 전 우주를 소유하셨고,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는 이 작은 혹성 하나뿐인데!”

닷새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탄은 경악과 증오에 사로잡혔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땅은 그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사탄의 증오의 강도는 하루하루 더 증가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 성경 학자들은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창조에 관련된 사건들의 연속성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과목에서 자료로 삼은 것은 창세기 1 장 1 절과 2 절 사이에는 시간상의 “간격”이 있음을 가르치는 “간격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사탄이 이 땅으로 반항 후에 쫓겨났고, 그 결과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2 절에 묘사된 대로 어두웠다고 가르칩니다.

이론은 사탄의 반항과 타락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일어났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모든 학자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사탄이 없어진 시간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과목에서 묘사된 대로, 사건들의 연속성에 동의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소유하였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이 인류를 그토록 심하게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 창조하신 후, 그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26 절에서 우리는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6 절에서, 우리는 같은 사실을 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9: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권세에 속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의 성품 그 자체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탄 위의 권세

하늘에서의 전쟁 후에 사탄은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뒤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사탄이 보았을 때, 그의 공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땅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의 모든 것들 위에 권세를 포함한 주권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 두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은 아담과 더불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와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창 2: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 단지 아담만 아니라

인류를 처음으로 언급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남자로 다스리게 하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 1:26-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도록,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서 주권과 권세를 함께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 바다의 고기와

➤ 공중의 새들과

➤ 육축과

➤ 온 땅과

➤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님

인간은 그의 동료 인간 위에 행사하라고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사탄과 그의 모든 귀신들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구를 제외하고는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적 권세와 주권을 소유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

➤ 자유의사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인류는 의지 작용, 선택, 자유의사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의지작용은 에덴동산에서 순종과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혹은 안 먹는 것 사이에 시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아직도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창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은 인류를 증오함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는 순간, 그들은 사탄이 강제로 빼앗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 그들은 하나님처럼 보였고,
- 그들은 하나님처럼 말하였고,
- 그들은 하나님처럼 행하였고,

그들은 이 땅 위에 만물과 사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는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왕국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사탄의 끔찍한 두려움

사탄은 우리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또 행하셨던 바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주권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안에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주권 안에서 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내가 하리라”

이사야에 쓰여진, 사탄이 “내가 하리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짐

사탄의 반항으로 되고자 소원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 사탄은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인류는 하나님과 친교를 갖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대화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더불어 왕 노릇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못 별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들 위에 중요한 자리를 처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젠가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리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고전 6: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 좌정하게 됩니다.

엡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 구름 속에서 -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전 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탄이 인류를 미워하는지 여전히 궁금하십니까?

➤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 하나님처럼 말하도록

➤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 하나님처럼 다스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역함으로 사탄이 빼앗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사실이 사탄에게는 얼마나 굴욕적인 것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문 제

1. 여러분이 자신의 말로써 이 땅의 기원, 사탄의 타락과 이 땅에 결과적인 심판을 설명하십시오.
2.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을 재 창조하셨을 때 권세와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역할 하셨는지 서술하십시오
3. 왜 사탄이 당신을 미워하는가 설명하십시오. 미움을 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제 3 과

속임수로 된 사탄의 계획

사탄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와 같이 전 인류가 하나님이 소유하셨던, 바로 똑같은 생명과 성품을 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제 인류가 이 땅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장악했음을 보고, 아연실색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향했던 모든 증오를 인간을 대적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는 인간이 성공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스스로의 계획을 짜냈습니다!

사탄의 계획

속임수

사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속였습니다. 그리하여 삼분의 일이 반항으로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쓰는데 능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 즉, 그들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순종의 형벌을 주셨습니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 자신을 위장하여 하나님을 의심케 하였다.

사탄은 자신을 뱀으로 가장하여, 동산에 눈에 띄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산에 있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탄이 위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동산 안으로 걸어 들어왔었다면 아담이 쫓아냈을 것입니다.

창 3:1a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함”은 교활하거나 약삭빠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그가 하와에게 말할 때 뱀의 몸 속에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오늘날도 몸 속에 들어가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장이며,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악을 위한 눈가림입니다.

창 3:1b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죄에 대한 형벌은 빠뜨려 놓았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음

사탄이 그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꼬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음을 유의하십시오.

창 3:2-3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하셨던 것에 “만지다”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여전히 형벌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사탄의 거짓말

4 절 b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부인했지만 하와는 여전히 계속 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죄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

5 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와 아담에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지만, 사탄은 그들에게 더 이상 바라도록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

둘 다 죄를 지었음

대체로, 우리는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고 그에게 왔을 때 하와는 혼자 있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절에서 우리는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를 읽게 됩니다.

그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그만두고, 그들의 욕의 감각들을 따라갔으며,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서 과실을 먹었습니다.

6 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과실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빛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었으나, 이제는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사용하여,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또 그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사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법은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그들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 패배한 채로
- 벌거벗은 채로

사탄은 그들을 속였고 인류는 그들의 옷, 권세와 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창 3: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 두려워하며
- 숨었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패배시켰습니다. 이제 이 땅의 이전 지배자들은 옹크리고서 덤불 뒤에 숨었습니다!

창 3:10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임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도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속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창 9:1,2,6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였음이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은 아직도:

- 생육하고
- 번성하고
- 땅에 충만하고
- 땅을 정복하고
-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고통으로 이루어지고, 얼굴의 땀으로 되며, 또, 모든 만물은 인류의 수고로 살게 되었습니다.

복습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의 뜻을 행사하였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주권을 도둑맞았습니다.

인류가 권세와 주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탄의 뜻은 인류가 하나님께 반항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뜻을 택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서 칭호들을 도적질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왕자

사탄이 이 일을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속임수를 써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저주들이 임함

- 뱀 위에

뱀이 사탄에게 그 몸을 사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저주가 모든 뱀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창 3: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

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 여자 위에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남편이 그녀를 다스릴 것입니다.

창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녀는 그 자신의 창조된 지위를 다시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여자들을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 남자 위에

남자 위에 내린 저주는 그가 수고로 땅을 갈아야 식물을 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땅 위에

땅도 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 18~19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 사탄 위에

사탄이 인류에게 그의 큼직한 승리를 얻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

하나님께서는 뱀 속에 들어 있었던 사탄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에게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

사탄에게 내리신 저주는 또한 오시는 메시야에 관한 첫번째 약속이었습니다. “후손”이란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었던 예수의 예언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부수어지고 또 상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상징들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미래에 관한 모형이나 상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 무화과 잎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화과 잎들은 스스로의 죄를 덮으려는 인간의 시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상징입니다.

➤ 죽임을 당한 동물

아담과 하와를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번째 피흘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될 예수의 표적 혹은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류 역사 속에서 심지어 가장 캄캄한 시점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자유의사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탄의 패배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 혹은 권세가 상하게 될 것이며 또 그 권세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따라서 회복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계획

사탄의 속임수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보이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창조되었던 인류를 미워함과 두려워함을 절대로 그만둔 적이 없었습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여러 세대를 걸쳐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들은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임무들

사탄은 완전한 작전계획으로 그의 세력을 조직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각 나라, 각 남자,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배정되어, 그들은 속박했습니다.

그들의 집념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또 멸하는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가져오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00 년 동안 인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탄은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왔습니다.

문 제

1. 왜 사탄이 남자와 여자로 불리는 피조물들은 것처럼 맹렬히 증오했는지 설명하십시오.
2.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를 서술하십시오.
3. 창세기 3:15 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4 과

그 때에 예수께서 오셨음 - 하나님의 계획

첫번째 아담 - 마지막 아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실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창세기 3:15) 바울은 이 사건에 관해서 설명하고 또 그것을 구속자에 관한 첫번째 약속에 연관시킵니다.

갈 4:4-5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의 권세는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죄와 죄의 형벌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저주로부터 구속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 다시 한 번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가져왔음

죄는 이 세상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왔습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께서 가져오셨음

➤ 의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19 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좋은 소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덩불 뒤에 숨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라.”

눅 2:10~11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사람들 중에 평화

그날 밤 베들레헴 언덕 가에 있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 육의 영역으로 터져서 옮겨왔습니다.

13~14 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는지요! “그의 은혜가 내린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전 우주를 통하여 느낄 수 있었던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천사들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그들의 찬양을 부르도록 목자들의 안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사들까지도 그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역사하셨음

예수님은 이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으로서,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일개 인간으로서 역사하셨습니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일컬었습니다.

고전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가 첫번째 아담에게 행하도록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권세로 행하셨고 또 사역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만이 그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이 됨으로써 만이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사탄을 패배시키고 사탄이 첫번째 아담에게서 훔쳤던 권세와 주권을 도로 빼앗는데 필요하였습니다.

아담 이 후로 예수님께서서 첫번째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왔을 때 그는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침례)

➤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또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였기 때문에 모든 4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1:10, 눅 3:22, 요 1:32)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 기적들을 행하셨음

예수님은 처음 그의 생애의 30 년 동안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자 곧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때에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두 배의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음

➤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심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의 성품 모두를 포기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빌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기꺼이:

- 자기의 체면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 자기를 낮추시고,
-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과 동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모든 권리들을 자기에게서 비우셨고 이 땅에서 일개 인간으로서 역할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종의 형체를 택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일개 인간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의 그의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였습니까?

첫번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고 사탄에게 그의 권세를 항복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신으로 입혀짐으로써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담이 지으심을 받았던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권세는 인자의 권세였습니다. 아래 구절에서 요한은 대단히 흥미진진한 어휘들 - “하나님의 아들” - “인자”를 선

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요 5:25~2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땅 밖에서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원으로 행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그가 인자였기 때문에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인간은 권세와 주권을 지니고 행하도록 지음을 입었습니다. 권세를 소유하셨던 분은 인간 예수였습니다. 그가 인자였고 마지막 아담이었기 때문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도록 지으심을 입은 것만 행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으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역사하셨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가 하셨던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계셨을 때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같은 권능, 권세와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셨음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 선택 혹은 자유의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의지작용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완성하시도록, 예수님은 또한 시험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가지 부분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 육신 - 하와는 과실을 보았고, 그것이 먹음직하였습니다.
- 혼 - 사탄은 그녀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약속했습니다.
- 영 - 최종적으로 그는 그녀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세가지 부분에서 역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 육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 일 동안 계셨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약한 시기를 틈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의 인간의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시험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로서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들을 포기하셨습니다.

➤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킴

마 4:1~3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 네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 하나님으로서의 네 권리를 도로 찾아라.”

이제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예수께서 돌들을 떡이 되게 하였더라면, 그는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성품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일을 하셨더라면, 사탄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양쪽 다 패배시켰을 것입니다.

➤ 예수께서 대답하셨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탄에게 응수하였습니다.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 자기를 사람으로서 밝힌 점에 유의하십시오.

5 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 시험 - 혼

두 번째 시험은 혼의 부분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의 일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핑계를 대어서 그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 네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6 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은 똑같은 기본적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인자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는데 있었습니다.

➤ 예수께서 대답하셨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함으로써,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심을 아셨고, 또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 - 영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탄에게서 이 땅을 도로 찾으려고 여기 오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 세상의 신이 됩

마 4:8-9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은 이러한 만국을 예수님께 제안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속여서, 그의 권세를 훔쳤고 그런 뒤에 이 땅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불순종이 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탄에게서 이 땅을 도로 빼앗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 예수께서 대답하셨음

예수님은 사탄과 논쟁을 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를 놓고 사탄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복습

만일 예수께서 사탄이 그에게 하도록 시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하셨더라면 그는 “인자”로서의 그의 권리를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인류의 구속을 마련할 만한 “완전 한 대속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가 도로 찾으려고 오셨던 바로 그 일을 제안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사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 즉 십자가상에 죽음이 없이 - 참으로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을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사탄은 사람들을 통하여 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 27:40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종종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같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의 전부는 어떤 분야에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락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말하는데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신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

예수님은 시험을 이해하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탄이 이러한 영역에서 패배 당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시합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나 예수께서 승리로 걸어나가신 것처럼 -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 2: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음

예수님도 우리가 당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셨던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한 자신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고 또 시험에 대항할 만한 초 자연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 4:14~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주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든 시험들은 공통점이 있음

사탄의 계략들 중의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보다 우리의 시험은 별나고 또 힘들어서 우리는 다 르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들은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아래에서도 지탱해 나갈 수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에게 응수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왔을 때,

- 그는 사탄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 그는 사탄에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 그는 사탄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고려하지 않으셨 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사탄이 패배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병이 우리의 육신에 들어오려고 시도할 때에는 우리는 “기록된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경제상태를 공격할 때에는 우리는 “기록된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기록된바, 모든 나의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찌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말하지 말고 - 해결책을 말하십시오.

쓸 것을 말하지 말고 - 대책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사탄은

모조리

완전히

여지없이

패배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문 제

1.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그가 이 땅 위에서 계셨을 동안 사람의 아들로써 역사하셨고, 그리고 사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2.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동안 인간의 권세로서 역사하심을 어떤 본보기로 들 수 있습니까?
3.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불순종 하도록 시험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사탄을 어떻게 패배시킬 수 있습니까?

제 5 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셨던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행하셨습니다. 그는 일부러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비웠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 땅 위에서 권세를 소유하셨던 분은 인간 예수였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의 권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셨고 마지막 아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첫번째 아담이 되도록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첫번째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속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사하셨던 권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류에게 주셨던 권세였다면 그러면 우리도 구속 받은 남녀들로서 오늘날 같은 권세로 행할 수 있습니다.

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안에서의 새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대로의 남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또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인간의 한 사람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생활

속에 매일 절대적인 권세와 주권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위한 하나님의 견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알려줍니다

첫번째 가르침의 내용

➤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그의 지상사역을 위하여 내리셨고 그에게 권능을 입히셨습니다. 이후로 즉시, 그는 광야로 이끌리어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과 그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히신 한 사람으로서 그의 권세를 행사하셨고 그는 그의 지상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또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눅 4:14,16,18~21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사야 61:1,2 절을 읽으셨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의 내용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하신 후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그의 권세 있음에 놀랐습니다.

➤ 권세를 지니셨음

눅 4:31~32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 귀신이 쫓겨나감

33~35 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 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셨고 또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 권세와 능력

36 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들 -병-나무-폭풍 위의 예수님의 권세

마가 역시 가버나움에서의 예수의 사역과 그가 행하셨던 사역에서 권세로 인한 사람들의 기이하게 여김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다른 귀신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귀신 위의 권세

예수님은 귀신들 위에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40~41 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병 위의 권세

예수는 병 위에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막 1:40~41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인간의 육신 위의 권세

예수는 손이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3:1~3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

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한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 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권세로써 말씀하시니 그 사람은 손을 내 밀었고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피조물 위의 권세

➤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위에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마 21: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물체 위의 권세

➤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음

예수님은 권세를 쓰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막 4:35-38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에게 이르셨습니다.

39-40 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 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

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뜻하신 바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도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41 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 우리의 본보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권세로 행해야 하며 사역해야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 위에서 그의 사역은 구속받은 또 회복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의 본보기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일을 할 때에 예수께서 하셨던 바와 같은 담대한 권세로써 살고 또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을” 때에 권세로써 말씀하셨습니다.

눅 4:38-39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나사로를 살리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담대하고도 힘있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 11:43 이 말씀을 하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의 일을 행함

예수님은 가셨던 곳마다 인자로서의 그의 권세를 아셨던 결과로 오게 되는 담대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가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를 풀어놓았을 때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그 당시와 오늘날의 신자들 양쪽 다를 위한 본보기로써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해 오셨던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같은 권세로 행하면서 나가서 사역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마 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께서 생활하셨고 사역하셨던 같은 권세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담대한 권세

예수님의 사역은 두려움과 겁 대신에 담대함과 권능의 본모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딤후 1: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수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가 권세로 사역하셨을 때 저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작별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막 16:15~18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본을 따를 때 우리는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첫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질병, 묶임, 가난과 죽음을 포함한 것 전부위에 다스리고 또 주권을 행사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류는 그가 행하도록 창조되었던 바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경악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하셨을 때 사탄은 경악에 질린 채 보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인간 으로서 주관하시고 권세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으로써 사탄의 역사들을 멸하셨습니다.

요일 3:8b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문 제

1. 요한복음 5:25~27 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써 혹은 인자의 권세로 역사하셨습니까?
2. 물체들과 연약함과 병들과 귀신의 영들 위에 예수께서 권세로 행하신 예를 드십시오.
3. 이 땅에서 예수께서 권세로 행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 여러분이 이 땅에서 권세로 행할 때 오늘날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제 6 과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사탄의 왕국은 멸하게 되었고 또 사탄은 예수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속임수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속임수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사탄은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속여서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것을 성사하도록 그가 뱀의 몸에 들어갔을 때처럼 배신을 도모하도록 유다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너무나 심히 미워한 나머지 그가 죽기를 바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뇌를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주권들과 또 악령들은 모두가 다 흐뭇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멸망이 닥쳐왔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승리와 축하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당했고,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독한 사기꾼이 속았습니다

지독한 사기꾼 자신이 속았습니다. 그의 맹목적인 미움으로 그는 그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뒤 따르는 부활로 그를 모조리 패배시키고 또 인류를 죄의 결과로부터 구속하게 될 사람의 죽음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와 병들과 연약함들을 고통의 장소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 전쟁의 기간동안 전세계가 진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사탄은 아담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을 그의 권세 밑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권세의 열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지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흘간에 걸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 12:40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 휘장이 둘로 찢김
- 지진이 일어났음
- 바위가 쪼개짐
- 무덤이 열렸음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격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예수께서 땅 속에서 사망의 결박을 끊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 땅이 맹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 27:50~53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전쟁은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님과 사탄과 그의 마귀적인 사자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셨을 때, 사탄은 그의 귀신들을 결정적 사건의 증인이 되도록 불러들이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놓치지 가까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죽으셨을 때,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악마적인 환희를 준비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잃은 시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사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인 증오감에서 사탄은 “그는 지옥의 밑으로 던져져야 한다!”라고 외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무식과 어리석음으로 기뻐 날뛰기 시작했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 뒤에서 단혔을 때 그들의 축하는 짧게 끝장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처참한 죄들을 짊어지신 채, 무저갱까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셨을 때 지옥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리를 구부리시어 이미 지었던 혹은 앞으로 범할만한 모든 죄를 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도록 장사지냈습니다.

시 103: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윗이 예언하였음

- 죄의 형벌을 지심
- 죄의 심판을 지심

다윗은 그의 죽음 후에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묘사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최후 과멸을 계획할 때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은 무력하고,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그는 음부의 깊숙한데 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불신앙으로 죽었던 자들이 고통과 심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들의 형벌과 심판을 짊어지신 채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시 88:3-7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왔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륙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셀라)

다윗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시 16: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사야가 예언했음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의 부활과 죽음을 앞당겨 말했습니다.

사 53:8-12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

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어린양

- 많은 사람들의 죄악들을 담당하심
-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심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로서의 어린양의 역할을 응하셨습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의 염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땅속까지 내려가셨을 때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사라진 속죄의 염소를 묘사해준 역할을 응했습니다.

레 16:10,21,22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음부 속까지 데려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행 2: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 임이로다.

지옥(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사망과 지옥그리고 무덤의 열쇠들(권세들)을 사탄에게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패배 당했음

옛날 전쟁과 적의 패배에 관한 역사는 다음 구절의 중요성의 특별한 의미를 가하게 됩니다.

골 2: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공부하였던 정사들과 권세들은 사탄의 귀신들의 조직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옛적에는 군대가 적군을 패배시켰을 때, 그들은 무장을 해체시키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사슬에 서로를 결박한 채로 정복된 나라에 노예로서 전적을 불명예스럽게 그들을 행진시키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손수 사탄과 각종 귀신들의 “무장을 해체” 시키셨 습니다. 그는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공중 앞에서 망신을 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옷을 벗기어 모욕을 당한 채로 달렸을 때, 며칠 전에 축하하였던 자들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패배시켰습니다.

- 벌거벗긴 채로
- 그들의 권세를 벗겨버림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패배시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 십자가에 매달아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패배시키셨습니다.

- 벗기고

➤ 영원토록 그들의 권세를 빼앗음으로써

부활

십자가상에 그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우리의 죄들을 음부 깊은 속까지 끌고 내려가셔서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과 무덤의 열쇠들을 사탄에게서 빼앗아 내셨습니다.

사탄을 패배시키고 또 사망의 권세를 파괴시키셨기 때문에 무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를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심은 능력 승리의 폭발이었습니다. 사탄과 각종 귀신들은 패배당했습니다!

엡 1:19~21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승리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리 속에서 승천하셨고 또 “사로잡힌 자들을 그의 행렬에” 인도하셨습니다.

엡 4:8-10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패배당한 적군의 행렬 - 즉 무장해체 당한, 벗기운, 하늘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완전히 모욕당하는 분명한 장면 속에 보이는 - 을 인도하는 정복한 장군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통째로 패배 당하고 또 그들의 전적인 수모는 공중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에게서 권세의 열쇠들을 빼앗아 버렸을 때, 그는 아담이 그의 불순종으로 사탄에게 항복하였던 권세의 열쇠를 도로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손에서 권세의 열쇠를 빼앗았을 때 그는 인류와 이 세상 위에 있던 사탄의 권세의 무장을 해체 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수 사탄과 각종 그의 귀신들을 패배시켰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음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하늘에 있는 합당한 위치로 귀환하셨을 때, 분명히 하늘의 천군들의 기쁨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승리의 귀환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 24:7-10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셀라)

승리를 선포하심!

요한 사도는 그가 승리를 선언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 1: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께서 열쇠들을 소유하셨음!

예수님은 하늘에 당도하셔서 외치시기를 “아버지 제가 열쇠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당했고 그래서 제가 열쇠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사탄이 그들에게서 훔쳤던 열쇠들을 사탄에게서 빼앗으셨고 그 권세의 열쇠들을 그의 손에 갖고 계셨습니다.

열쇠들의 중요성

예수님은 열쇠들을 사탄에게서 빼앗으셨으나 그것을 간직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인류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첫번째 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그들에게 주시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यो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사야에서도 열쇠에 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사 22:22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나간 세대에서 열쇠들은 무척 큼직하고도 묵중하였고 또 지나치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유층의 남자들은 종종 열쇠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장식용으로 어깨 위에 걸고 다녔습니다. 종종 두 세 명의 종들이 열쇠들을 어깨에 걸고 부유한 남자의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이것은 부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오시는 메시야에 관해서 예언하였을 때 그는 어깨 위에 짊어질 열쇠의 중요성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사 9:6a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와 권세의 열쇠들은 예수님의 손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열쇠들을 빼앗으셔서 그의 교회에게 그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 위의 권세는
인류에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문 제

1.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디로 가져 가셨습니까?
2.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 요한계시록 1:18 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열쇠들은 무얼 상징합니까?

제 7 과

인류에게 회복된 권세

예수님의 일은 완전하셨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였고, 그리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은 사탄에게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 때에 완전한 인간이며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모든 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도록 창조하셨던 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죄 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전 인류를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그 죄들을 땅 속 깊이까지 가져가셨고, 그 뒤에 하나님 자신의 권능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는 사탄과 그의 모든 귀신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패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의 열쇠들을 빼앗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인류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되도록 또 소유하도록 창조하셨던 모든 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인류에게 재 청구되었고, 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으시리라고 하셨던 교회에 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알려주셨습니다.

마 16:18b,19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날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 10:12-13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윗 역시 예수님의 현재 위치를 앞당겨 말했습니다.

시 110: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과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 사람 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이상의 일을 하시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원수가 그의 발등상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이 되도록 만들 예정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들의 회복된 권세를 발견하고, 사탄은 패배당한 원수임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탄을 제자리로 집어넣는 것은 신자들의 과업입니다. 신자들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예수의 발 밑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하여야 할 만한 일은 모조리 하셨습니다.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들, 그의 다리, 그의 발들입니다. 우리가 말로 오늘날 우리의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를 위한 중요하고도 능력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위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을 전부 포함했습니다.

엡 1:18~23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의 위치

바울 사도에 의하면

-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 하늘의 영역에 우편에 앉히시고
-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 위에 뛰어나시고
-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 머리로 임명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의 세력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혹은 앞으로 일컫게 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권능의 표준

권능의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약에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약속에 있습니다.

구약 속에는 권능의 표준이 홍해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속에는 권능의 표준이 과거에도 그랬고 또 아직도 그랬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기록하기를,

엡 1:19b,20a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신자들의 위치

바울 사도는 신자들의 마음눈이 밝아져서; 즉 그들이,

- 그의 부르심의 소망,
-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 능력의 지극히 크심
- 우리가 그의 몸인 것과
- 우리가 그의 충만인 것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도록 되어 있고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능력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충만하심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공백 혹은 빈 곳을 채우고 있다면 언제 이러한 빈 곳이 생겼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빈 곳”은 루시퍼 때로 돌아가서 “뒤편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이 그의 반역으로 그를 추종했던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였습니다.

겔 28: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뒤편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천사의 지도력

신성에 삼위일체가 있듯이, 천사들의 지도력 미가엘, 루시퍼와 가브리엘이 있었습니다.

➤ 삼분의 일

루시퍼가 반역하였을 때 “그의 천사들이” 그와 더불어 쫓겨났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계 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의 천사들도 묘사된 천사들은 그와 더불어 땅으로 내어 쫓겼고, 하늘의 천사들의 삼분의 일을 차지했습니다.

계 12:4a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 미가엘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언급된 유일한 천사였습니다.

유 1:9a 천사장 미가엘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 즉 “용과 그의 천사들”을 대적하여 싸웠던 전사들이었습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마도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수하에 삼분의 일의 천사들은 아버지를 섬기었는지도 모릅니다.

➤ 가브리엘

아마도 가브리엘은 언제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그 수하에 삼분의 일의 천사들과 성령님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스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심히어 잉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그에게 주기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눅 1:19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은 또한 마리아라는 이름의 처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눅 1:30,31,35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가브리엘은 성령의 일을 나타내주었습니다.

➤ 루시퍼

그러면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루시퍼는 덮는 그룹으로써 속죄소의 양편에 있었던 덮는 그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바른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대로 덮는 것은 찬양과 경배의 사역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반역으로 루시퍼와 그의 모든 천사들이 쫓겨났을 때 이러한 공백은 어떻게 채워졌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섬기는 사역의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천사들 중 얼마를 다시 임명하시도록 그들에게 요청하셨겠습니까?

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의 형상대로, 그의 경배자가 되도록 “하늘 나라에서 그와 더불어 앉히우시고” 그의 옆에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다스리고 또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백이 메꾸어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남녀들은 구원받는 순간, 창조자께서 그 분 자신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불어넣으실 때에만 비로서 다시 완전해지며, 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공백을 그 자신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그의 몸은 찬양과 경배의 사역 속에서 그들 자신을 그에게 드림으로써 그분 안에서 공백을 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초에는 오직 유일한 사역인 찬양과 경배의 사역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즉 신유의 사역, 축사, 화해, 회복과 기타 사역들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사역이 교회에 회복됨으로써 오늘날 그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다른 사역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필요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양과 경배로써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려 섬기게 되면 우리 생활에서 신유나 혹은 축사나 혹은 다른 사역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충만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 그를 섬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몸인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하시는 자의 충만”이 됩니다.

엡 1:22~23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면 우리는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종전의 역할을 성취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패배당했고 또 하늘에서 더 이상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욕하고 또 우리 발아래 그들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춤출 때 우리는 우리 발의 그 동작으로 사탄을 부숩

러 패배시키고 있습니다.

주: 찬양과 경배를 더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하려면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이 쓴 찬양과 경배 연구교재를 읽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업적과 또 그 뒤따른 사건들로 인하여 사탄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각종 귀신들도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패배시켜, 아무것도 아닌 존재(nothing)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큼직한 “무(zero)”로 만드셨습니다!

- 왜 우리는 지금, 사탄이 우리를 패배시키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 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도시, 우리의 국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도록 합니까?
- 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병을 주도록 합니까?
- 왜 우리는 가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공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복된 권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우리가 이미:

- 건짐을 받았고
- 옮겨졌고
- 구속을 받았고
-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 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이러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 6: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늘나라를 “침노하여 전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되는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묘사를 하였습니다.

골 1:15~18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 만물을 함께 붙들어 주시며,
-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며, 그가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은 모든 신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의 몸으로써 이미 사탄의 주관으로부터 구출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주관 안에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참으로 새로운 나라로 옮겨졌다고 우리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의 발을 포함해서 그의 몸의 나머지 부분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은 그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효과적인 영적전쟁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진전시켜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탄의 위치

예수님의 발아래

하나님은 사탄을 예수님의 발 밑에 두셨고 또 예수님은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시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엡 1:22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의 발아래

롬 16:20a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떤 이의 발아래 있다는 것은 통째로 정복되어 있고, 패배당했고 또 압도 당해있는 모습입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권세아래

사탄은 예수의 발아래 있으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완전히 그를 패배시켰고 또 사탄과 그의 모든 귀신들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사탄과 모든 귀신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회복된 권세를 발견하고 또 그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아래 들어가 있게 됩니다.

누가는 사탄의 위치에 관한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무것도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상할 수 없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눅 10:19 (상세한 번역판)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리고(육체적, 정신적 힘과 재능) 원수[소유한]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인류는 구출되었고, 옮겨왔고, 구속되었고, 사함을 받았고,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이제는 사탄을 그의 발아래 밟아서 그가 패배당한 원수임을 제시할 때입니다.

이사야가 사탄의 말로를 묘사할 때 그는 발 밑에 밟힌 것으로 그의 존재를 가리켰습니다.

사 14:18~20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찢려 들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명령의 연속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께로 되돌아 가셨을때는, 인자로서의 그의 권리는 포기하였고 하나님께의 아들로서의 모든 그의 권리들을 다시 자기에게 돌려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권리

하나님으로서, 그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자 모든 주권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가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바대로 이 땅에서 사탄을 그의 발아래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놀랍고도, 격려가 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 너는 의로 설 것이며,
-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 누가 너를 공격할찌라도 그들이 항복할 것이다.
- 너를 치려고 제조된 무기가 날카롭지 못하리라.
- 너를 대적하는 혀를 네가 정죄할 것이라.

사 54:14~17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 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기업은 출생의 권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속한 어떤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와 종들의 기업이다!

문 제

1. 만일 “만물”들이 예수의 발아래 있다면 왜 마귀와 그의 귀신들의 세력들을 아직도 이 땅 위에서 그들의 악한 일을 계속 자행할 수 있습니까?
2.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죽음으로 또 그의 부활로써 사탄을 패배 시킨 후에도 이 땅 위에서 그의 악한 일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시고 계십니까?
3. 여러분의 생활에서 만일 여러분이 회복된 권세 속에서 걷고자 하며 사탄은 패배당한 원수이고 그를 여러분의 발아래 두는 것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제 8 과

오늘날의 사탄의 계략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000 년 후 - 사탄은 권세를 횡령했습니다.

2000 년 후에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음
사람들은 가난 속에 살고 있음
사람들은 죄 속에 살고 있음
사람들이 패배 속에 살고 있음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있음
사람들은 약물중독의 자녀들을 두고 있음
사람들은 점성술을 경배함
왜 사탄은 아직도
그가 이 세상 신인 것같이
행세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패배 당했고
아무 세력도 없는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실 때 그의 분량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능-주권-권세로써
우리의 분량을 행했습니까?

사탄의 계략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킴

모든 세대를 걸쳐서, 사탄의 의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 10:10a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
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심하게 미워한 나머지 그의 귀신의 군대 계열을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서 생활의 또 다른 사역에 필수품들을 도둑질하도록 지령을 내렸습니다. 병마, 살인 혹은 자살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려는 음모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을 노리는 비극의 사고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선언을 내걸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은 멸망 당해야 된다.!”

만일 귀신들이 우리를 죽일 수 없게 되면,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지연시켰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병마를 파송함

사탄은 병마의 귀신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려고 시도합니다.

눅 13:11~13 십팔 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요 5:5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우겨쌈을, 답답한 일을, 핍박을 받음

바울사도는 그의 생애와 사역 위에 오는 사탄의 공격을 묘사하였습니다. 모든 사탄의 음모가 바울의 여호와를 위한 사역을 중시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됨으로 우리는 격려를 받게 됩니다.

고후 4:8-9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탄은 우리 생애에 있는 선하고 긍정적인 모든 일을 공격합니다.

- 결혼생활
- 자녀들
- 가족들
- 친구들
- 사역들
- 건강
- 기쁨
- 평안

우리의 방어책

원수의 계략을 알 것

남녀들은 지식의 결핍으로 망합니다. 만일 그들이 사탄의 목표인 도둑질, 죽임과 멀하는 것을 중지시키려면 그들은 원수와 또 그의 계략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 사탄은 죽음을 초래함 - 하나님은 생명을 초래함
- 사탄은 미움을 가져옴 - 하나님은 사랑을 가져옴

예수님

- 사망을 폐하셨음

예수님은 사망을 폐하셨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딤후 1: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 마귀의 세력을 폐하셨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하셨습니다.

히 2:14~15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 종노릇에서 놓아주심

사탄은 우리를 종노릇에 잡아둘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왕국의 종노릇의 결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또 멀하려고 올 때에 그들은

우리가 공격 받기 쉽고 보호가 없고 혹은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여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견고히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도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사 54:17a “나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하리라.”

사탄의 가장 급선무 -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함

여러분의 검은 날을 예리하게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영 속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씀으로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풍성함”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도둑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또 전쟁은 이미 이겨놓았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부의 비유 - 승리를 위한 계시

비유
마가복음 4:3~8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이하심
마가복음 4:14~20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이 비유가 구원의 씨를 심는 것과 또 전도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을 때 사탄은 즉시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도적질하려고 오리라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와 친밀한 시간을 갖고 난 뒤에 항상 환난이 온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까?

굉장한 집회나 세미나 후에는 만사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말씀을 훔치려고 온 것입니다.

세가지 일 중에 하나

말씀을 심어놓았을 때에는 세가지 일 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만일 우리가 사탄이 환난과 핍박을 가져왔을 때, 기분을 상하면 사탄은 즉시로 말씀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치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또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환난들/핍박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막 4: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간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탄은 즉시로 옵니다

사탄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도록 허용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패배 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생애에 패배를 가져오는 많은 계획들과 계략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의 최고 급선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서 도적질하는데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옵니다.

막 4:15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엮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음

예수께서 갈치시기를 마치실 때 그들은 배를 타고 나갔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이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막 4:35-41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찾아왔던 폭풍은 “환난과 핍박”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뿌리자 마자” 사탄이 오리라고 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유의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분이 저조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예수께서 주무시면서 그들처럼 무서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보지 주시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도적질하려는 시도로써 우리를 대항해서 환난들이나 핍박들을 가져올 때,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경고해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우리가 사탄의 책략을 안 뒤, 마귀를 꾸짖거나 그렇지 않고 기분이 상하여 기쁨을 잃어 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사탄이 우리에게서 훔쳐가도록 허용하는 것 둘 중의 하나입니다.

환난들과 핍박들이 올 때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까?

➤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 “하나님, 제 아이들이 길 잃어버리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
까?”
- “하나님, 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 “하나님, 제가 청구서를 갚을 수 없음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
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분이 상하도록 허락하고 또 우리 생활속에 폭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면,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중한 씨를 우리에게 흠쳐가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함

만일 우리가 우리 심령에 말씀의 씨를 간직하고, 심은 것의 30 배, 60 배, 혹은 심지어 100 배의 큰 결실을 기대한다면 믿음의 긍정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막 4: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권세로써 말함

생활의 폭풍이 우리의 배를 대항해서 올 때, 기분이 상하게 두는 대신에 우리는 마귀에게 대적하여 일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막 4: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비록 사탄은 패배당한 원수이지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우리 생명에 대해서 오는 원수의 각가지 공격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갑주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체계에 대항하여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엡 6:10~11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떤 폭풍의 와중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엡 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권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는 이미 마귀와 그의 모든 귀신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이 땅 위에서, 남녀가 권세로써 걷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서서 마귀가 패배당한 원수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힘있게 전진 시켜야겠습니다.

문 제

1. 요한복음 10:10 절에 의하면 사탄은 우리의 생활에서 세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격하여 옵니다. 이러한 세가지 목표들을 적으십시오.
2. 농부의 비유에 의하면 도적으로서 사탄의 최고의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3.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면했을 때 우리가 권세로 행하고 또 우리 자신을 성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제 9 과

교회와 권세

교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급

구약 전체를 통해서 경배는 항상 장막, 성소나, 회당 주위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일 처음 교회를 언급하셨을 때, 그는 또한 교회의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교회를 특징지을 수 있는 세가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지어질 것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에 찬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고 풀어주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 16:13~18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리는 세례 요한, 더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본적인 진리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 의하거나, 인간의 전통에 의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두 번째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세한 번역판(Amplified Bible)에서는,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며 - 혹은 손해를 줄 만큼 강하지 못하며, 교회를 대적하여 견디지 못하며.”

매고 또 풀어주는 열쇠들

교회는 매고, 풀어주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 언급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배워야 세가지 사항을 보게 됩니다.

-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라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계시 위에 세워질 것이다.
-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대적하여 견디어 낼 수가 없을 것이다.
-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들”이 주어질 것이며, 또 매고 풀어주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회복된 열쇠들

우리는 이 땅에서 권세라고 일컬어지는 “열쇠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문들”을 잠그거나 혹은 열 수 있는 열쇠들은 개인 한 사람, 한 가족, 한 단체, 한 도시, 혹은 한 국가 같은 어떤 존재 위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다스리는 열쇠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인류에게 주셨던 열쇠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탄에게 도적맞음

이러한 열쇠들은 이 땅 위에서 선한데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또 멸하려고 왔던 사탄의 열쇠들에게 항복했습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던 권세의 열쇠들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이 되었습니다.

계 1: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 의해 다시 찾게 되었음

예수께서 우리의 죄들을 땅속까지 끌고 가신 후에 마귀에게서 빼앗아 낸 권세의 열쇠들이 이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음부의 세를 통하여 통쾌한 승리로 오셨을 때 그는 권세의 이러한 열쇠들을 사탄에게서 도로 찾아 오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떤 법적 권세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회복되어짐

이러한 열쇠들은 예수께서 그의 부활 후 또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후 새 피조물로서 인류에게 회복시켜주셨던 권세였습니다. 이러한 열쇠들은 이 땅 위에서 본 소유자에게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로서 잘못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그들은 “하늘나라의 열쇠들”로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왕국의 열쇠들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러한 열쇠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던 승리입니다.

마 6:9-10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열쇠들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늘 왕국을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공격태세에 놓인 교회

예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을 때, 그는 즉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 16:18b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분이 무엇을 의미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문이라 하면 우리는 울타리나 성의 입구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그림을 갖고서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문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문들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한 도시의 정부와 상업이 그 도시의 문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문들”이란 성곽도시의 안전을 마련해주는 한편 또한 도시나 혹은 국가의 지배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것을 그의 잠언의 한 구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잠 31:23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문들을 차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그는 그의 원수들의 문들을 차지함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리브가에게 내리신 축복도 역시 원수들의 문들을 차지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창 24:60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 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뜻은 그의 지배권을 인계받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계에서 우리의 원수들의 문들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세와 주권과 적극적이고 맹렬한 영적 싸움으로 “문들”을 강

제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 14:19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문안에서 움츠린채, 마귀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렇지만 공격태세에 있어야 하는 것은 교회이지 사탄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는 “음부의 권세(=문들)”로 돌진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강제로 전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전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열쇠들

예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열쇠들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는 아버지에게 “나는 열쇠들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쇠들은 인간의 회복된 권세들을 상징합니다. 그가 정사 과 권세들의 무장을 해체 시켰을 때, 사탄에게서 예수님이 빼앗아낸 열쇠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열쇠들을 갖고 있는 이러한 하늘왕국은 무엇입니까?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전 우주 위에 왕노릇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그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속받은 남녀들이 그들의 영적권세의 회복된 열쇠들을 사용함으로써 완강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매고 또 푸는데 쓸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열쇠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고 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의 열쇠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계에서 전쟁을 수행하여 이길 때에 육의 영역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묶어줌과 풀어줌의 원칙

예수님은 그가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묶일 것이며 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음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함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마 12:28~29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누가 강한 자인가?

강한 자는 사탄이거나 혹은 사탄의 정부, 기관 혹은 개인의 생활에 파송했던, 다스리는 귀신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의 집에 들어 가셔서, 강한 자(사탄과 그의 다스리는 귀신들)를 결박하셨습니다.

우리는 권세로써 말함으로 사탄과 그 뒤에 그 다스리는 귀신들을 결박합니다.

➤ **“사탄아,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노라!”**

다음으로, 우리는 다스리는 귀신에게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강한 자를 묶어야 합니다.

➤ **“너 더러운 귀신의 영아,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노라!”**

묶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묶는다”는 뜻은 사탄이나 지배하는 귀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으로 인도하셨던 어떤 특정한 상황 위에 제한시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개 한 마리를 사슬로 묶어서 말뚝에 고정시켜놓았을 때 그 개는 단지 제한된 거리만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결박해 놓았던 곳으로부터 사슬의 거리에 미치는 장소를 넘어서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에 제한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묶다”라는 어휘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의 집을 능탈하다

다음은 우리가 그의 집을 능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한 자의 권세아래 있는 귀신들에게

➤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 분별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영적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영들의 정체를 알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의 분명한 역할로 인하여 저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의 몇몇은:

- 점치는 영들
- 방해하는 영들
- 더러운 영들 - 음란의 혹은 변태성욕의 영들
- 병마들
- 고뇌의 영들
- 자살의 영들

영들을 쫓아내십시오!

이러한 영들을 쫓아냄으로써 우리는 강한 자의 집을 능탈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이 능탈되면 그는 무기력해지며,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눅 11:21~22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정사와 권세를 해체시켰고 그들을 드러내서 조롱거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그들 전부보다도 훨씬 높이 승천하셨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성취된 사실입니다.

신자들의 권세

신자들으로써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의 권세와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주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미 완성되었던바 -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사실을 지금 이 땅에서도 완성시키고 또 강화시켜야 하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신자들으로써 사탄과 그의 다스리는 귀신들을 묶고 또 갇힌 자를 풀어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영향의 영역에 제한을 주어야겠습니까.

마 16:19b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역시 정사와 권세를 해체시키고 그들을 드러내어 조롱거리로 만들고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 위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탄의 지위

무효가 되었음

예수님은 그의 사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 2:14 (상세한 번역 Amplified Bible) 그러므로 [이러한 그의] 자녀들은 혈육에- 즉 인간의 육적인 본질 속에 -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직접] 같은 [본질]을 비슷한 식으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즉,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겪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고있던 자 즉 마귀를 없애버리시고, 무효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함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과 종살이에서 놓여 나왔습니다.

히 2: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의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인류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모든 속박과 마귀의 두려움에서 놓여 자유로워지며, 완전히 구출됩니다.

그의 일들은 파멸되었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이유는?

- >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 > 그들을 드러내어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골 2: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잠자는 교회는 깨어났음!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는 땅 위에서 권세와 주권을 갖고 행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패배 당했습니다. 그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고, 또 쓸모 없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덩치 큰 헛깨비(zero)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권세와 주권은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그의 몸 된 교회인,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회복된 열쇠들입니다.

패배당한 적(敵)인, 사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를 무지하게 하여 사탄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두게 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계시를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서, 사탄과 그의 다스리는 귀신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묶고 그의 집을 능탈할 때,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들에게 명하여 떠나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후 10: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예수께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교회는 여태까지 잠자는 거인에 불과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행사하기위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문 제

1. 예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셨습니까?
2. 예수님은 우리가 “묶어야 하며” 또 우리가 “풀어주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러한 중요한 지시를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설명하십시오.
3. 어떤 이가 사탄의 견고한 진들 위에 “강한 자”를 묶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세간을 능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로 묘사된 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세간을 능탈” 하는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제 10 과

왕국의 열쇠들

예수님께서 열쇠들을 소유하셨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오셨을 때 외치신 승리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계 1:8 주 하나님은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들을 빼앗으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가지고 음부 속으로 한번 가셨지만, 그 곳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뉘 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행 2: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은 사망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주권과 왕권을 인간에게 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도적질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 위에 전적인 주권과 권세 속에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던 모든 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 즉 그의 생애와 죽음과 그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그의 귀신들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들 위의 권세를 행사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 승리를 위한 이기게 하는 열쇠

피 속의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아담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명은 아담의 몸의 어느 한 고립된 일부분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담의 피 속

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계속해서 아담의 몸의 각 부분으로 뿔어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피조물의 생명은 피 속에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레 17:11a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담의 죄 - 사망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의 피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 생명은 단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은 다시 한번 그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 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망이었던 죄의 형벌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 본 적이 없는 완전무결한 대속물에 의해서만 값으로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한 완벽한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한 바는:

➤ 죄사함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엡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벧전 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 의롭다 함을 얻음

➤ 구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생명 속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롬 5:8-9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십자가 상에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사망의 형벌을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보상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오직 나누어 가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사귄

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는 우리 생애에 저질렀던 죄의 모든 결과를 전부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구속

우리의 구속함과 전적인 죄사함은 그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골 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대속의 제물 즉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또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히 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 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 흠없이 됨
- 섬길 수 있게 됨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 담력을 얻었음

아담이 그가 죄짓기 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매일 사귀며 걸었던 것과 꼭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의식과 정죄의 식에서 자유함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 갈 담력을 얻었나니

- 화평을 얻었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골 1:19-20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 본래의 지위로 회복됨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켰던 것이 예수님의 피였던 것처럼, 사탄을 꺼꾸러뜨린 도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과 똑같은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신 인간에게서 도둑질하고, 인간을 죽이고, 파멸하려고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그의 생명에 미치는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피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음을 받았던 본래의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한 때 희망이 없이 패배에 사로잡혔던 인간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승리에 넘치는 정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보호의 덮어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하나님의 속죄 소에 뿌림

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거나 혹은 대속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위한 보호의 덮어줌이 되었습니다.

➤ 승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동할 때에 믿음으로써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사탄아, 나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있다!”
- “나의 가족과 재물도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다!”
- “사탄아, 예수님의 피가 너를 이겨내셨다!”
-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너는 나를 해치지 못한다!”

예수께서 사탄을 그의 피로 이기셨던 것과 꼭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계 12:11a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사탄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의 열쇠는 그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던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피의 능력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승리자들이며, 사탄은 우리 일생동안 계속해서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 승리를 위한 이기게 하는 열쇠

성령의 검

에베소서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우리의 병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6:17).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씀은 사탄이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사탄을 이길 것입니다.

계 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간증 속의 말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자기의 간증 속에 말씀”으로 번역될 수 있습

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바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들을 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또한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

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요일 2: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러한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강한 승리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주권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그들의 입밖으로 담대하게 말했을 때, 그들은 흉악한 자를 이미 이기었습니다.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 19:13~16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씀으로 하라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는 지를 알고 있었던, 즉 말씀을 말

함으로써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한 남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8:8-10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यो,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때) 예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놀랍게 여겨), 좃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지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보지(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확실히 증거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표적들과 기사들로 확실히 증거 될 것입니다.

막 16:19-20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 꼭 들어맞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헛되이 돌아올 수 없음

사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의 말씀의 병 고치는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시 107:20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destruction)에서

권지시는도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성취하는데 효과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말씀은 창조함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은 권세를 지니고 있음

예수님은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눅 4:36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오게 됨!

말씀을 아는 것이 좋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밖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 말씀을 믿고,
- 말씀을 말하고,
- 말씀이 기적들을 완성하는 것을 바라본다.

권세와 주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지음을 입었던 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인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권세의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쇠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각 가지 씨름 위에 승리로써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바 그대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문 제

1. 왜 예수님의 피가 마귀와 그의 귀신의 영들의 공격들을 이기는데 것처럼 효과적인지 설명하십시오.
2.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에 승리를 주었는가의 한 예를 드십시오.
3.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병기로 사용하도록 어떤 성경구절을 여러분은 암기하려고 합니까?

제 11 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 승리를 위한 이기는 열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할 때는, 마치 예수님 자신이 그 자리에 서 계셔서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믿는 믿음에 표적들이 따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막 16:15~18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신약 성경의 원래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에는 중단(구두점을 찍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 속에 있는 구두점은 번역하는 이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적당히 첨가한 것입니다.

막 16:17 을 이렇게 읽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구절을 정확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유가 된 권세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그 권세를 담대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고 또 행동할 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

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나올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완벽한 사역 전에는, 아무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들을 언급하려 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들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입 밖으로 큰소리 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지성소 안에만 새겨져 있었고, 또 대제사장에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신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 때, 그것은 두려울 만큼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풀어놓아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 그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였기 때문에,

➤ 그는 이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마 28:18 예수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이 풀려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분의 위치에 선채로 그 분의 권세를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리 위임권(=대리 위임장, 대행 권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쓰도록 법적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는 최고의 신임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양도하셨던 것입니다. 법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 위임장”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법조계에서의 “대리 위임장”이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어떤 이에게 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렇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 신임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에 서명하고, 그 계약 건에 “대리 위임장”의 복사본을 첨부하면, 그것은 신임하는 사람이 직접 계약에 서명한 것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일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서 행하셨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우리는 아들을 대신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듣는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함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성취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시도는 그 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 5:11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나 여호와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 하리.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빌 2:5-1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모든 귀신의 능력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귀의 모든 계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귀신의 세력들은 달아납니다.
-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암과 모든 다른 질병들은 무릎을 꿇

어야 합니다.

➤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사탄의 계교들은 패배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주(主) 되
심에 복종하여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 이름에 순복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에 순복
할 것입니다.

눅 10:17,19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도 똑같은 권세를 이 땅에서 소유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일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합니다.

요 3: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이니라.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
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
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 14:12~1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시면서, 그의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가 시행하실 것이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6:23~24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에 혁신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 하였음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 신자들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하여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름 속의 권능

행 3:1-10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열쇠는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풀어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 3: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행 3: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으로 고쳐짐

이 병 고침의 결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었고, 하루 밤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병 고침에 관한 그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답변하였습니다.

행 4:10...“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음

베드로와 요한이 불구가 된 사람에게 병 고침으로 사역한 결과로 인하여 믿는 남자들의 숫자가 약 5,000 명이나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행 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우리의 소중한 구원은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인한 것입니다.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이름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행 4:17~18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이름으로 담대하여짐

그 순간에 담대함의 영이 베드로와 요한 위에 임하였습니다.

행 4:29~30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립이 그 이름으로 전도하였음

행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이름 때문에 체포당함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과 송을 받았습니다.

행 9: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

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니다.

행 9: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두려움없이 그의 이름을 전파함

행 9: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감

행 16: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와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이름에 최고의 존경을 드림

행 19:17~18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남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담대하게 나서야 하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엄청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매일의 삶과 사역에서 기사들과 표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 4:29~31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우리의 세상을 진동시킬 것입

니다.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생활을 위한 열쇠는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던 초대교회 신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때, 우리도 또한 사도행전 속에서 서술되었던 똑같은 권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문 제

1. 사도행전으로부터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던 장소의 두 가지 예를 드십시오.
2.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대행 권한”을 가짐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승리를 체험할 계획을 하도록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도전들이 있습니까?

제 12 과

승리하는 영적 전쟁

전쟁을 위하여 무장함!

이제 우리는 영원한 증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의 권세와 강력한 무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하고, 승리하며, 이기는 전쟁을 위해서 무장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록하기를,

고후 10: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모르는 채, 영적 전쟁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신분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게 된 권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전쟁이란 강력한 원수와의 맹렬하고,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그의 귀신들에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집중되면 될수록,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더 핍박하고, 더 비열하고 그리고 더욱 강하게 보입니다.

패배당한 원수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의 미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운명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사 14:15~17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어떻게 할 도리 없이 패배당하고, 수치당한 자 곧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자를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핍박하고 또 강하게 생각했던 이 사탄을 놀라움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치욕으로 움츠려있는 사탄을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가?” “이 자가 바로 모든 사람이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바로 그 작자인가?” 라고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아무 것도 아닌, 초라하게 된 이 자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며 사탄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100% 패배 가운데 있는 사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몰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두하게 됩니다!

마귀는 패배한 적(敵)입니다. 그의 능력은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아무 것도 아닌 헛개비”(=zero)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무장해제를 당했고, 무능력해졌으며,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무(無)가 되었음

히 2:14b (상세한 번역) 그[자신]도 또한 한 모양[본질]에 속하여, 사망 [을 겪어 보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효로 만들고 또 없이하시며

우리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의 모든 세력 위에 능가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갈 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만만한 확신의 위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곧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원수와 맹렬한 투쟁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마귀가 이미 패배 당하였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기쁨에 찬 승리를 내다 보아야 합니다.

- 마귀는 “대단한 놈”이 못됩니다.
- 예수님이 “대단한 분!” 이십니다.
-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로 인도하는 발걸음

믿는 자의 권능과 권세는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을 달성하는데 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회

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헌신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100% 우리 생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헌신해야만 합니다.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분리될 것

우리는 이 세상의 돌아가는 사건들에 휩쓸려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야 되겠습니다.

딤후 2:4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소유욕을 거절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단지 행한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각자에게 어떤 영역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 우리의 결혼생활, 자녀들과 가족들
-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 인근지역, 도시들, 국가들
-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사역하는 장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영역 밖의 지역에 위치한 마귀의 견고한 진에 대한 전쟁을 하도록 우리의 영 속에서 풀려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들의 권세를 공부하여, 견고한 진을 파하기를 원 합니다.

사랑의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 군사로서, 믿음을 소유한 남자와 여자들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향해 교만하고, 무정하며, 거친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몬 1:4-5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강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계속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주어진 우리들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귀신들에 대해 다스리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면 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의 타협과 죄 혹은 세속적인 섞임이 없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분별의 영적 은사의 작동으로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사탄의 전략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악의 존재와 속임수, 타협 혹은 이들 오염의 섞임이 올 때 이들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방해한다면- 그것들을 다루고, 대항하고, 쫓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과 상상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눈을 다시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고후 2: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적 전문가가 없음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전쟁과 축사가 전문가 즉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귀신 축출가” 를 불러 오거나 혹은 그에게 가야만이루어 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대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가 기록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는 마귀에 대해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힘세고 질기고, 위험스러운 용사들로서 그들의 원수에게 보입니다. 갑옷 속에 들어있는 육체의 약점에 상관없이, 그들은 강력한 용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우리에게 갑옷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중세 시대의 기사들이 자신들의 갑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그들의 얼굴 위로 면갑(面甲)을 내렸을 때, 그들 모두는 적들에게 강력하고, 근육질의 위험스러운 전사들로 보였습니다.

그 갑옷 안에 있는 몸의 결점들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아주 힘센 전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도 마귀에게 하나님과 똑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는 그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걷고, 또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우리의 힘으로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엡 6:10-11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12 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싸

움은 자연적인 세상의 분야에서가 아니라, 영적차원의 영역에서입니다.

우리의 갑주

- 진리의 띠
- 의의 흉배
- 복음의 신

13~15 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은 “서다(stand)”라는 단어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악한 날이 당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땅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한 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제자리에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견고히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한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흉배가 제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서 알려진 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발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함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예비함은 우리의 뭉이며,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셨습니다,

딤후 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 믿음의 방패
- 구원의 투구
- 성령의 검

엡 6:16~17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마귀의 화전을 꺼버리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화전들(Flaming arrows)이란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 던지는 생각들,

유혹들, 질병들과 그 밖의 계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고정시켜 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지음을 받았던 그 모든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게 되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새롭게 하여, 우리 구원의 충만한 계시에 까지 이르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롬 12:2a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마음의 새롭게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는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게 될 때 오게 됩니다.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한 가지 공격용 무기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성령의 검에 관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 줍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이고, 우리의 발을 가리는 보호이며, 우리의 검입니다. 말씀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는 기도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를 입게 되면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해야 합니다.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의 회복된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하여 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용감무쌍한 군인”이 될 것이며, 또 사탄의 군대들을 패주시킬 것입니다.

히 11:33~34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역의 일을 위하여 준비시킴

예수께서는 우리가 전 세계를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사 52:7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울은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한 자이며, 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롬 8:37~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세례(=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힘에 의해서 전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 11:33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수님의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는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도적질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 오셨습니다.
그는 그의 교회 - 그의 강력한 군대 - 인
그의 구속된 인류에게!
이 땅 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온 열방에
전파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 위에서
권세로
걸어야 합니다!

암기할 구절들

- 에베소서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 베드로전서 5:8~9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 요한복음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창세기 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히브리서 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 요한일서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 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 골로새서 2: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 느니라.
- 요한계시록 1: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 에베소서 1:22~23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 로마서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누가복음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 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 마태복음 16:18~19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 요한계시록 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 요한일서 2:13~14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 빌립보서 2:9~10 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